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CONTENTS

I. 글로벌 ESG 주요동향	5
1. ESG 이해	6
2. ESG 정보공시 기준 동향	8
3. ESG 공급망 실사 동향	13
4. 업종별 ESG 공시 동향	14
II.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개요	17
1. 추진 배경	18
2.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20
3.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	21
4.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구성	25
5.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활용	26
III. 업종별 ESG 주요 이슈	31
1. 자동차 업종 ESG 주요 이슈	32
IV. 진단 항목 정의서	43
1. 진단 항목 구성	44
2. 자동차 업종 진단 항목 정의서	50
V. 부록	65
1. 업종별 이니셔티브 소개	66

I

Chapter

글로벌 ESG 주요동향





1. ESG 이해	6
2. ESG 정보공시 기준 동향	8
3. ESG 공급망 실사 동향	13
4. 업종별 ESG 공시 동향	14

1. ESG 이해

1. ESG 개념 및 중요성

- **(개념)**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¹⁾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함
 - **(환경)**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요인들이 포함되며, 최근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사용, 자원순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이 중요 관리 이슈로 부각
 - **(사회)** 이해관계자(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지역사회 등)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포함되며, 최근 인권, 안전·보건 등이 중요한 관리 이슈로 부각
 - **(지배구조)** 기업 경영진, 이사회,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요소가 포함되며, 이사회 다양성, 윤리경영, 감사기구 등이 중요한 관리 이슈로 부각
- **(중요성)** 전세계적으로 정부, 투자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사회 구성원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ESG경영은 선택이 아닌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
 - **(기업목적 측면)** ESG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이며, 기업의 존립 목적에 내재화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
 - **(자본조달 측면)** ESG는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한 필수적 관리 요소
 - **(지속가능 측면)**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추구해야 하는 핵심적 경영관리요소

2. 최근 글로벌 ESG 트렌드

- **(ESG 정보공시 의무화)** 국내·외 투자자, 고객, 시민단체, 규제기관 등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ESG 실행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
-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EU는 역내 기업뿐 아니라 EU에 수출하는 역외기업에 대해서도 ESG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EU 공급망 실사법」(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24년 상반기 내)
 - EU 공급망 실사법이 현실화하면 EU 권역으로 수출하는 약 18,000개 이상²⁾ 국내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1) 국내법에서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지속가능발전법」제2조)

2)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2023년 5월 24일

- **(ESG정보 평가·검증 신뢰성 논란)** 기업의 ESG 공시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대한 요구 증가
 - 특히 투명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ESG 공시정보 검증’ 요구 확산
 - 나아가 ESG 정보에 근거한 ESG 경영수준 평가³⁾, 평가결과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논의 확산
 -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발표(2023년 5월)
- **(업종별 ESG 평가지표 세분화)** 기업의 ESG경영 실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일반적인 이슈뿐 아니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ESG 이슈를 평가에 반영하는 추세
 - 글로벌 ESG 공시표준, ESG 평가기준, 업종별 이니셔티브 등은 이미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구체적 실행을 요구하는 단계에 있거나, 아직 개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 계획 중
 -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 산하 『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은 2024년 내 업종별 특화를 고려한 추가지표 발표 예정
-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개발)** 위와 같은 ESG 동향 변화를 반영하여, 아래 장(章)에서는 ESG 공시기준, ESG 평가, 업종별 이니셔티브의 업종 특성 요인을 각각 분석하여 가이드라인 개발에 반영

3)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Refinitive, Moody's, RepRisk, Sustainalytics, 한국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 등

2. ESG 정보공시 기준 동향

1.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⁴) 지속가능성 공시(안)

- (제정 배경)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고품질 정보공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IFRS⁵ S1(일반 요구사항) 및 S2」(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 발표(2023. 6. 26.)
- (적용 계획) IFRS S1, S2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회계연도부터 유효하나, 해당 기준의 시행과 의무화는 각국 관할 당국의 자율에 맡김
 - 향후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관련 서비스, 인적자원, 인권 등과 관련된 공시기준 단계적 제정 계획

구분	주요 내용
구성	- (IFRS S1 일반 요구사항) 일반목적 재무보고서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 정보를 포함한 일반 요구사항 규정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는 1) 거버넌스, 2) 전략, 3) 위험 관리, 4) 지표 및 목표 등의 공시 요구사항 규정
적용시기	- '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고 기간에 적용하여, '25년부터 공시 시작 * S1, S2 시행(여부, 시기)과 의무화는 각국 관할 당국의 자율에 맡김 * 한국은 '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공시 의무화 예정
공시방법	-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예: 사업보고서) 내 재무제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특징	- 「기후 관련 재무공시 이니셔티브」(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권고사항을 통합,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 관련된 4가지 핵심 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공시 요구 - TCFD, 「탄소 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등 여타 글로벌 이니셔티브와의 상호 운용가능성 보장 노력 - 최초 적용 연도에는 기후 외 지속가능성 정보와 Scope3 정보 미공시 허용, 차년도 반기 재무제표 보고 시점에 공시 허용

- (주요 특징) ISSB 정보공시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포괄적 기준선 제공, 여타 정보공시 기준과 연계, 업종특성 반영 등이 주요 특징
 -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공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시 요구
 - (모든 위험과 기회 식별) 단기,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포함
 - (4가지 핵심요소 공시 요구) 지속가능성 및 기후 위험·기회 관련 4가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공시

구분	주요내용
거버넌스	-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모니터링, 관리·감독하는 거버넌스의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전략	-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
위험 관리	-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식별·평가하고 우선순위화 및 모니터링 하는 기업의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 (기업 자체 설정 목표, 법·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목표 추진 과정 포함)

4)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국제회계기준원(IFRS 재단)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2021년 11월 설립한 위원회

5)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국제회계기준



- (업종 공통과 특화지표 구분) 특히, IFRS S2(기후 관련 공시)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업종별 사업 모델·활동 관련 특화지표 구분

구분	주요내용
① 업종전반 지표 (업종 무관 공통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첫 해는 Scope 3 공시 제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기준에 따라 측정 - 온실가스 프로토콜 가치사슬 기준 Scope 3 배출량 범주 15개 고려 - Scope 3 측정 시 과도한 비용과 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정보 필요 • 전환 위험 및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 활동의 금액과 비율 •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 활동의 금액과 비율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자본 지출, 자금 조달 또는 투자액 • 배출 비용을 평가하는데 사용한 내부 탄소 가격 • 기후 관련 사항과 연계된 임원 및 경영진 보상
② 업종기반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사업모델 및 활동과 관련된 업종기반 지표 공시 - ‘IFRS S2 이행에 대한 업종기반 지침(S2 부속 지침) 참조 필요
③ 기후 관련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자체 설정 목표 및 법/규제에 따른 기후 관련 목표 - 각 목표의 특성, 검토 방법, 성과 정보 - 기후 변화 관련 최신 국제 협약이 목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해당 협약에서 발생하는 관할권 약정 포함) - 배출량 목표가 총 배출량인지 순 배출량인지 명시 필요 (순 배출량 목표 공시 시, 총 배출량 목표와 탄소 크레딧 사용 계획 포함)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⁶) 기후 공시(안)

- **(제정 배경)** 미국 SEC는 기업 재무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을 발표(2022. 3. 21.)
- **(대상·시기)** 기후공시 의무화 대상은 기업 규모에 따른 대응 역량을 고려하여 대상에 따른 적용시기, 내용을 단계별로 적용할 예정
 - **(적용 시기)** 공시해야 할 정보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단계별 적용 예정
 -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및 검증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예정
 - **(적용 대상)** 미국 SEC 전체 상장사(미국 내 기업과 미국에 상장된 외국 국적 기업 포함)에 적용
- **(구성 요소)** SEC 기후관련 공시(안)은 크게 ‘Regulation S-K’와 ‘Regulation S-X’로 구성
 - **(Regulation S-K)** 기업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s) 및 연차보고서(Annual reports)에 별도의 세션을 마련하여 기후관련 정보공시를 요구
 - **(Regulation S-X)** 재무제표에 재무적 영향, 비용지출 지표, 재무 추정치 및 가정 등 기후관련 주석 공시를 요구

6)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 독립기관으로서, ‘22년 ESG 관련 정보공시 규정을 발표하여 기업 지속가능성과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SEC 기후 공시 규칙(안)	
기후 관련 정보 공시 (Regulation S-K)	재무제표 주석 공시 (Regulation S-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1 항목] 지배구조 • [1502 항목] 전략, 사업 모델 및 전망 • [1503 항목] 위험 관리 • [1504 항목]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 [1505 항목] Scope 1, Scope 2 배출량 검증 • [1506 항목] 지표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영향 지표(Financial Impact Metrics) • 지출 지표(Expenditure Metrics) • 재무 추정치 및 가정(Financial Estimates and Assumption)
 <p>증권신고서 및 연차보고서 내 기후 관련 별도 섹션을 신설하여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p>	 <p>증권신고서 및 정정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후 관련 재무 영향 지표, 지출 지표, 재무 추정치 및 가정을 공시</p>

• 주요 특징

- (기후관련 위험 공시) 비즈니스 또는 재무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관련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공시 요구
- (재무제표 주석 공시)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해야 할 기후관련 위험의 수준 및 공시지표에 대한 지침을 제공
 -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절댓값 합이 관련 재무항목의 1% 이상인 지표
 - 기후 위험 완화를 위한 지출 또는 자본화된 비용이 전체 총지출 또는 자본화된 지출액의 1% 이상인 지출 지표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 요구
-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종속회사까지 포함하여 Scope 1, 2 배출량 공시, 중요한 경우 Scope 3까지 포함한 감축 목표와 Scope 3 배출량 공시 요구
-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상장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Scope 1과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
- (위반 시 처벌) SEC에 규정된 기후 관련 항목을 허위 기재 시, 기존 공시 관련 처벌 규정이 적용됨

3.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⁷⁾) 공시(안)

- EU 집행위원회는 ESG 공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CSRD를 발표하고, 의무공시 대상기업 및 공시항목 확대, 제3자 인증 의무화 등 추진(2021년 4월)
 - EU 집행위원회 위임을 받은 EFRAG에서는 CSRD가 규정한 지속가능성 공시지침을 구체화한 ESRS 초안 공개(2022년 11월)
 - EU 집행위원회는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와 ISSB, TCFD,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과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여 ESRS 최종안 확정 발표(2023년 7월 31일)
- (대상·시기) 적용 대상 및 시기는 기업 규모(종업원)에 따라 상이
 - 직원 500명을 초과한 EU 내 상장사, 은행 및 보험기관이 가장 먼저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7)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CSRD 적용 대상·시기⁸⁾>

	대상회사	의무공시 시기
1	NFRD 요건 해당 기업 (일정규모(大) * 이상의 EU 상장 국내기업)	FY24 ('25년 공시)
2	EU 소재 대기업 (일정규모(大)** 이상의 EU 상장·비상장 국내기업)	FY25 ('26년 공시)
3	EU 소재 중소기업 (일정규모(中) 이상의 EU 상장·비상장 국내기업)	FY26 ('27년 공시)
4	EU 매출액이 최근 2년 동안 연간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非EU기업, EU에 일정규모 이상의 종속기업이나 지점을 보유한 非EU기업	FY28 ('29년 공시)

* ① 근로자 수 500인 이상이고, ②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 ① 근로자 수 250인 이상, ②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③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상 중 2가지 이상 충족 기업

· (구성 요소) ERS는 2개의 공통 표준과 10개의 ESG 주제 표준(E1~E5, S1~S4, G1)을 포함, 총 12개의 표준으로 구성

ESRS 구성요소			
공통 표준 (Cross-cutting stand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RS 1] 일반 요구사항 • [ESRS 2] 일반 공시사항 - 지배구조, 전략, 영향/위험/기회 관리(중요성 평가), 지표 및 목표 		
주제 표준 (Topical standards)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RS E1] 기후변화 • [ESRS E2] 환경오염 • [ESRS E3] 수자원 • [ESRS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 [ESRS E5]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RS S1] 자체 임직원 • [ESRS S2] 가치사슬 임직원 • [ESRS S3] 지역사회 • [ESRS S4] 소비자·최종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RS G1] 행동 규범

- 기업은 중대성(materiality) 평가 후, 외부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기업이 외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주제를 선정해 ERS가 요구하는 보고 사항을 공시해야 함

8)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 방안, ESG 금융 추진단, 2023. 4. 27.

• 주요 특징

- (이중 중대성 평가) 기업 관련 지속가능성 이슈가 미치는 ‘영향 중대성’ 및 ‘재무적 중대성’을 평가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 요구
- (가치사슬 보고) 중대한 영향, 위험·기회 관련 정보에는 가치사슬을 포함해야 하는데, 타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면 업종 평균 데이터나 기타 합리적인 정보를 활용한 정보의 추정 요구
- (TCFD 프레임워크 반영) ESRS 2(일반 공시사항)는 TCFD 프레임워크를 반영해 지속가능성 관련 거버넌스, 전략, 영향, 위험·기회 관리, 지표 및 목표 관련 정보공시 요구
- (ESG 주제 표준 공시) 주제 표준은 ‘환경’(5개 주제, 32개 지표), ‘사회’(4개 주제, 32개 지표), ‘거버넌스’(1개 주제, 6개 지표) 관련 공시를 요구하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가치사슬 내 근로자 등 최근 논의되는 ESG 주제를 폭넓게 수용

3. ESG 공급망 실사 동향

1. EU 공급망 실사법

- EU는 ‘그린딜’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세부 정책 입법 추진 중
 -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전 공급망에 걸쳐 원천사 및 협력기업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EU 공급망 실사법 발의
 - 2023년 6월, 의회 수정안이 공개됨과 동시에 3개 정책결정기구(EU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 간 3자 회합 절차 진행 중
- EU 공급망 실사법은 글로벌 수출시장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용 대상, 실사 범위, 법적 책임, 위반시 제재수준 등은 더욱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상황

<EU 공급망 실사법(안) EU 3자 정책결정기구 비교⁹⁾>

구분	EU 집행위원회(안) (2022년 2월)	EU 이사회(안) (2022년 12월)	유럽의회(안) (2023년 6월)
적용 대상	- [EU 기업 / 1 그룹] 근로자 500명 초과 & 전세계 순매출 1억5천만 유로 초과인 기업	좌동	- [EU 기업] 다음 중 어느 1개에 해당 ① 근로자* 250명 초과 & 전세계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인 기업 ② 그룹내 근로자 500명 이상 & 전세계 순매출 1억5천만 유로 초과인 최종 모기업 * 비정규직 등 포함 ** 로열티 포함
	- [EU 기업 / 2 그룹] 근로자 250명 초과 & 전세계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 순매출의 50% 이상이 고위험 업종으로부터 창출된 기업		- [非 EU 기업] 다음 중 어느 1개에 해당 ① 전세계 순매출 1억5천만 유로 초과 & 순매출의 4천만 유로 이상이 EU 역내에서 창출된 기업 ② 그룹내 근로자 500명 이상 & 전세계 순매출 1억5천만 유로 초과 & 순매출의 4천만 유로 이상이 EU 역내에서 창출된 최종 모기업
	- [非 EU 기업 / 1 그룹] EU 역내에서 순매출 1억5천만 유로 초과인 기업		
	- [非 EU 기업 / 2 그룹] EU 역내에서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 순매출의 50% 이상이 고위험 업종으로부터 창출된 기업		
실사 범위	- 비즈니스 관계* * 기업자체, 자회사, 직접공급자, 하도급자, 간접공급자 등 해당 기업과 유의미한 직·간접적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공급자 대상	- 비즈니스 파트너* * 업스트림과 일부 다운스트림으로 한정	- 비즈니스 파트너* * 업스트림과 일부 다운스트림으로 한정
민사 책임	- 포함	- 조건부 포함	- 포함
제재 수준	- 실사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게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면,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좌동	- 전세계 순매출 기준으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되, 최 대한도는 전세계 순매출의 최소 5%이어야 함 * 순매출은 연결매출로 계산
	- 제재 대상기업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함		- 좌동
	- 해당 없음		- 문제가 된 제품·서비스의 유통과 수출입 금지

9)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European Commission」을 최초 발의하였던 EU 집행위원회 정책문서, 이에 대한 EU 이사회 의견 및 유럽의회 본회의 합의안 참조

4. 업종별 ESG 공시 동향

1. 업종별 ESG 공시기준 제정

-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으로 인해 기업가치 평가와 투자 관점에서 기업의 ESG 성과를 상대 비교할 필요성이 커졌고, 그 결과 최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ESG 공시기준이 개발되는 상황
- 특히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중대성 원칙에 따라 선정한 업종별 주요 이슈가 글로벌 기준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IFRS 재단의 ISSB 공시기준도 업종별 지표는 SASB를 참조하여 수록
- 과거 비재무 성과의 공시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GRI 또한 2021년 기준 개정을 통해 석유·가스, 석탄, 농수 등 업종별 기준을 새롭게 제정하고 40개 업종으로 세분화한 기준 개발 추진
- EU의 ESR도 '23년 7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발표한 데 이어, 환경의 영향이 큰 8개 업종에 대한 공시기준을 추가 제정할 예정
 - * ▲석유 및 가스 ▲석탄, 채석장 및 광업 ▲도로 운송 ▲농림어업 ▲자동차 ▲에너지 및 유틸리티 ▲음식료 ▲직물, 액세서리, 신발 및 보석류

2. 업종별 ESG 이니셔티브 확산

- 업종별 ESG 이니셔티브*는 각 업종에서 요구하는 ESG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 NGO, 협회, 평가사, 금융기관 등이 협업해 설립
 - * RBA(전기전자),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Responsible Steel(철강) 등
- 이들 이니셔티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국내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 특히 EU를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법 등 ESG 관련 입법이 본격화하면서, 업종별 ESG 이니셔티브를 협력사 선정 등의 기준으로 준용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

II

Chapter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개요





1. 추진 배경	18
2.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20
3.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	21
4.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구성	25
5.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활용	26

1. 추진 배경

1. ESG 정보공시 표준 및 평가 고도화

- 연기금, 운용사, 평가사* 등 글로벌 ESG 평가기관은 점차 강화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주기적으로 평가지표와 방법론 고도화 추진

* DJSI(Sustainable1)¹⁰⁾, MSCI(MSCI Ratings), Sustainalytics(Morningstar) 등

- 특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ESG 이슈와 관련한 새로운 공시표준*과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공표

* 기후변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17.6.29.)

생물다양성: TNFD(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3.9.18.) 등

2. 업종별 ESG 특화지표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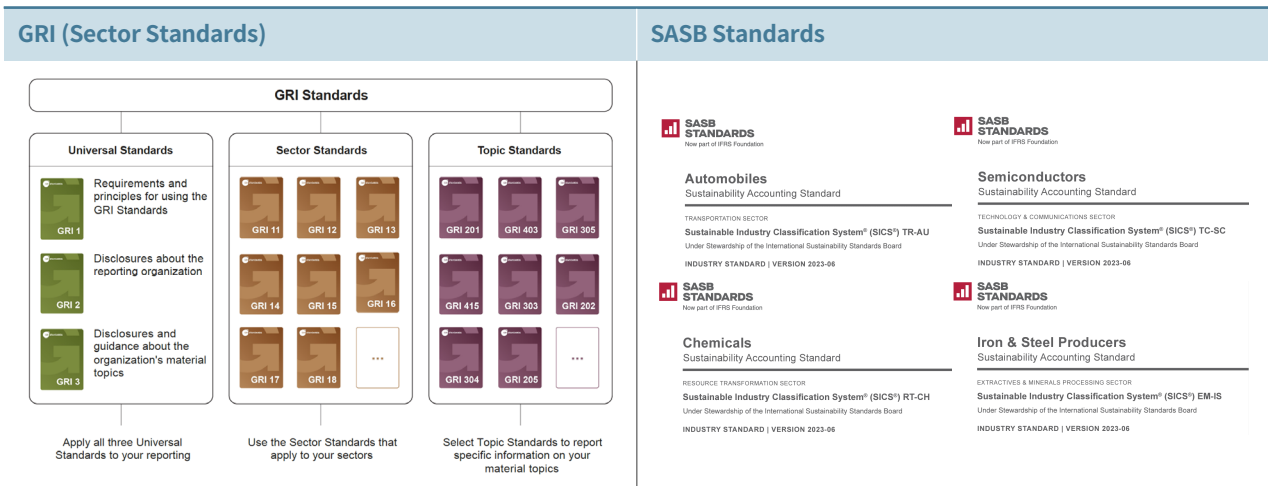
- 기업 경영활동이 업종에 따라 명확히 달라지는 경우, ESG 평가지표 또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 다수 존재

- 최근 ESG 공시표준 제정기관*은 업종별 주요 ESG 이슈를 다루기 위한 표준 제정 및 공표

* GRI : 총 40개 Sector Standards 개발 예정

* SASB : 투자자의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별 지속가능성 지표 공개

<글로벌 ESG 공시표준 기관의 업종특화 지표>



- ESG 평가사 또한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단 항목과 별개로 업종별 중요성이 높은 특화 이슈에 대한 추가 항목 구성 중

* 자동차 산업의 '에너지 소비효율(연비)', 철강 산업의 '물 부족 지역 노출 정도' 등

10)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 업종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K-ESG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실제적 ESG 대응 역량 제고 필요
 -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외부 ESG 평가 대응력 향상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했지만 업종 공통지표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 존재
 - * '21년 「K-ESG 가이드라인」, '22년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 국내 기업들이 업종별 이니셔티브 등 점차 고도화되는 특화 이슈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에 따라 세분화된 가이드라인 필요

업종특화 이슈 예시 1. (자동차) 제품 안전

- 리콜된 차량의 총 대수와 특정 차량 모델에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재해 및 사망과 연관되어 주목할 만한 리콜 대수 관리

업종특화 이슈 예시 2. (철강) 수자원 리스크 관리

- 총 사업장 중 물 부족 지역(water-stressed areas)에 노출된 사업장의 노출 정도 관리

업종특화 이슈 예시 3. (반도체) 초순수 사용량

- 수자원 재사용 또는 리스크 대비 전략 등을 수립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초순수를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업종특화 이슈 예시 4. (석유화학) 수질 오염물질 배출 관리

-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을 파악해 관련 전략을 구축하고 공시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노력 확인

2.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1.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수많은 ESG 평가지표가 상존하고 있어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
 -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주요 공시표준 및 ESG 평가지표를 엄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및 기업 혼란 완화

2.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항목정의서 설계

- 주요 글로벌 공시표준 및 ESG 평가방식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여 지표 설계에 반영
 - (업종 포괄 범위) 글로벌 공시표준에서 정의하는 업종 포괄 범위와 국내 산업계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진단항목 적합성 확보
 - (세부 근거 규정) 글로벌 ESG 평가지표의 준거기준을 분석하여 국내 기업들이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준거기준 제시

3. 가이드라인 활용 목적을 고려한 모듈식 구성

- 기존의 K-ESG 가이드라인과의 연계성 및 가이드라인 활용자의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해 모듈식 가이드라인 체계 구성
 - K-ESG 가이드라인 활용 주체별 활용 목적에 따른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

3.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

1.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세스

(1단계) 업종별 ESG 이슈 분석	
~'23년 6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제기구의 공시 표준,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업종 이니셔티브 지표 등 검토를 통한 업종별 이슈 확인 • EU, 미국 등 주요국 정책문서 등 ESG 관련 최신 논의 동향 종합분석을 통한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수립 <p>(산출물) K-ESG 가이드라인 업종별 주요 이슈</p>
↓	
(2단계) 업종별 가이드라인 진단항목정의서 개발	
~'23년 10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주요 이슈 관련 글로벌 공시 표준 및 이니셔티브 지표 분석을 통한 가이드라인 지표체계 정립 • 국내 산업계 현황 및 국내 법·규정 분석을 통해 한국적 특성에 맞는 진단체계로 재구성 <p>(산출물)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정의서 (영역, 범주, 항목, 점검 기준)</p>
↓	
(3단계) 업종별 전문가 간담회 시행	
~'23년 11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시행을 통한 가이드라인 완성도 및 활용도 제고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정의서 고도화 <p>(산출물)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최종본</p>

2. (1단계) 업종별 ESG 이슈 분석

• 주요 국제기구의 ESG 공시 표준,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업종별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요구하는 평가지표 및 글로벌 기업의 ESG 성과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업종별 주요 ESG 이슈 파악

① 국제기구 공시 트렌드 분석

- (SASB) 미국 SEC에 보고할 기업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 2018년 77개 업종별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을 발표하면서 업종별 중대이슈 관련 정보 공개 요구
- (TCFD)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발족한 이니셔티브로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설립, 2017년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점 공시할 것을 요구
- (GRI)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관련 가이드라인 최초 제시, 2021년 경제·경영 환경변화와 복잡·다양해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표 수정 및 업종별 표준* 개발 시작

* 2023년 10월 현재 '석유·가스(GRI 11)', '석탄(GRI 12)', '농축어업(GRI 13)'의 3개 업종 표준이 개발 완료되었고, 추후 40개 업종으로 확장 예정

② ESG 평가기관의 업종별 특화지표 분석

- (CDP) 전 세계 주요 상장 기업¹¹⁾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와 쟁점에 관하여 장·단기적인 관점의 경영 전략을 요구·수집하여 연구·분석·평가하는 범세계적 비영리기구
- (DJSI) 우량기업 평가지수 중 하나로 기업을 단순히 재무적 정보로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 사회공헌도, 지배구조 등을 토대로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해 우량기업을 선정

③ 업종별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의 원칙과 지침 분석

<주요 업종별 글로벌 이니셔티브>

업종	명칭	내용
자동차	Drive Sustainability	18개의 선도적인 자동차 기업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자동차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철강	Responsible Steel	철강 생산과 사용에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 거버넌스 측면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철강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제정한 이니셔티브
전기전자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공급망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보장하며,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운영을 하도록 제정한 기준
ICT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ICT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고,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 기업들이 제정한 이니셔티브
석유화학	Together for Sustainability	화학 공급망에서 지속가능성 평가와 감사를 통합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글로벌 화학 기업들이 제정한 이니셔티브
바이오/제약	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	제약 및 바이오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환경, 윤리, 인권 등의 위험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약 기업들이 결성한 이니셔티브
분쟁광물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분쟁광물 및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광물의 책임감 있는 조달을 지원하고 도구, 자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

④ 글로벌 기업의 ESG 성과 및 정책 분석

<업종별 지표 설계를 위해 분석한 글로벌 기업>

업종	분석대상 기업
자동차	Mercedes-Benz, BMW, VOLVO 등
철강	ArcelorMittal, Aperam, Bluescope 등
반도체	인텔, MS, 구글, AMD, ASML 등
석유화학	BASF, DOW, Dupont 등

11) 상위 500대 FT500 글로벌 인덱스 기업

3. (2단계) 업종별 가이드라인 진단항목정의서 개발

- 가이드라인의 현실 적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국내 현황을 고려한 진단항목, 진단방식 등 지표체계 설계
 -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 범주 및 준비 현황 등을 진단항목별 점검 기준 설계 시 고려
 - 진단항목 및 점검 기준 활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 개발을 통해 가이드라인 이용자의 이해도 제고

국내 산업계 현황 고려 예시 1. 철강

- 광산의 채굴 및 관리 활동과 관련한 지표는 국내 철강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적용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지표선정에서 제외 필요

국내 산업계 현황 고려 예시 2. 석유화학

- 국내 석유화학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기 위해 공통 화학업종에 해당되는 지표는 제외 필요

- 진단항목별 국내 법·규정과 연계성 확인, 한국적 특성 반영 및 근거 규정 명확화
 - 글로벌 ESG 지표에서 제시하는 진단항목 관련 법·규정 분석, 특정 진단항목이 국내 법·규정과 상충되는지 확인 및 국내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국내 법·규정 제시
 - 국내외 법·규정을 고려하여 개별 진단항목의 단계별 기준 설정, 항목별 활용 데이터 및 용어의 법·규정 연계성 확보, 정부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고려한 항목 설계

4. (3단계) 업종별 전문가 간담회 시행

- 산업현장, 자본시장, ESG 평가기관, 학계 등 ESG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초안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정의서의 영역, 범주, 항목 구성의 타당성과 점검 기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인
 - 특히, 업종별 특화 진단지표를 위한 기준 마련, 중소기업의 활용성 증대 등 K-ESG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의견 수렴

<전문가 간담회 참석 대상>

구분	참석자
산업현장	ESG 경영 추진, 외부 ESG 경영평가 대응, 공급망 ESG 실사 등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대·중소중견기업 실무 담당 임직원
자본시장	ESG 채권 평가, ESG 펀드 개발, 운용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실무 담당 임직원
평가기관	기업의 ESG 경영활동 분석, ESG 평가 모형 개발 및 ESG 경영 수준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 실무 담당 임직원
지원기관	ESG 진단 평가 대응, 공급망 ESG 실사 대응 관련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실무 담당 임직원
대학교	ESG 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진

- 업종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및 점검 기준, 추가 설명의 적절성 검토 및 내용 보강
 - 국내 기업의 ESG 경영수준을 고려하여 진단항목 및 점검 기준 재검토
 - 진단 항목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시 및 참고자료 보강

간담회 주요 의견 및 수정/보완 사항

1.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진단항목*은 2024년 초 금융위원회가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ESG 공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 이후 적용이 바람직
 - *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 기후변화 물리·전환 리스크, Net-Zero 달성 목표 등
2. 국내 산업계 전반은 자연자본, 생물다양성 등 TNFD 권고 공시 지표에 대한 준비도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간 필요
 - ⇒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리스크 및 자연자본·생물다양성 관련 진단항목은 향후 K-ESG 가이드라인 개발 시 반영 검토

4.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구성

① 업종별 주요 이슈, ② 업종별 진단항목 정의서

- (업종별 주요 이슈) 해당 업종에서 논의되고 있는 ESG 이슈를 취합하고, 평가기관 및 업종 이니셔티브 등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이슈 도출
 - 글로벌 ESG 관련 법·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 업종별 이니셔티브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주요 공시주제 포함
- (업종별 진단항목 정의서) 업종특화 지표가 포함된 외부 ESG 진단/평가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진단항목으로 구성
 - 글로벌 ESG 공시 표준, ESG 경영 평가 지표 및 업종별 이니셔티브의 업종특화 진단항목을 종합하여 ① 자동차(7개), ② 철강(8개) ③ 반도체(6개) ④ 석유화학(14개) 4개 업종에 대한 지표 제시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구성>

업종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별 주요이슈	7대 주요이슈	6대 주요이슈	6대 주요이슈	6대 주요이슈
업종별 진단항목정의서	5개 범주 7개 진단항목	5개 범주 8개 진단항목	4개 범주 6개 진단항목	6개 범주 14개 진단항목

5.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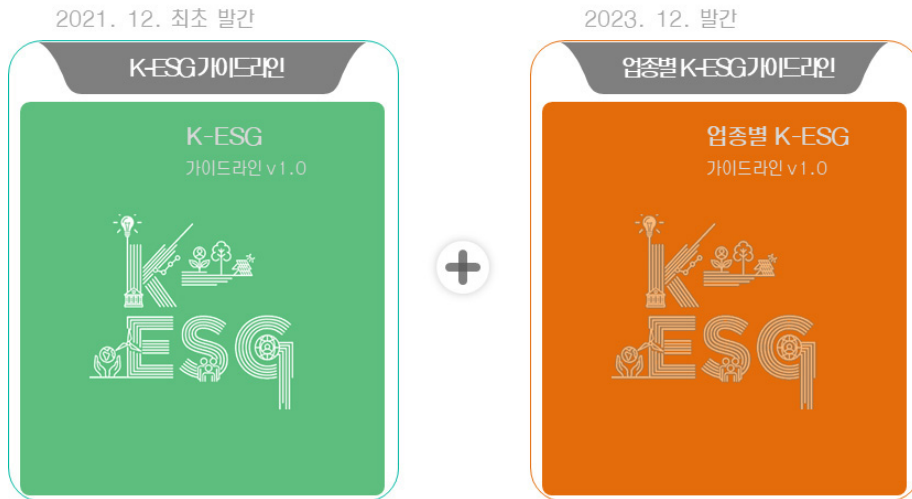
1. 역대 K-ESG 가이드라인

- 2021년부터 개발된 K-ESG 가이드라인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투자 유관기관, 정부 및 지원기관 등 산업계 전반에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단항목 신규 개발 및 고도화 추진
- 조직 내 ESG 경영체계 구축, 외부 평가대응, 공급망 관리, ESG 정책 수립 시 활용 등 가이드라인 활용 주체별 활용 목적에 따라 폭넓게 활용 가능

K-ESG 가이드라인 v1.0	개발 목적	- 산업 전반의 ESG 수준 제고 - 조직의 ESG경영과 평가대응 방향 제시
	개발 방향	-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지표와 공시기준 분석 -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지표를 국내 상황과 고려한 진단지표로 개발
	진단항목 구성	- 총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진단항목
	구성 특징	- 업종 공통의 ESG 이슈 중심 구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고용 추가진단항목 개발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v1.0	개발 목적	- 조직의 공급망 ESG 평가 대응 및 ESG 경영체계 구축 - 조직의 공급망 관리를 위한 ESG 평가체계 구축
	개발 방향	- 업종별 이니셔티브 및 다수의 공급망 ESG 평가의 공통 진단항목 분석 - 공급망 ESG 진단 및 실사 대응을 위한 핵심 지표 개발 - 진단항목 별 국내 법/규제 정합성 검토
	진단항목 구성	- 총 4개 영역, 18개 범주, 60개 진단항목
	구성 특징	- 조직 규모 및 수준별 적용을 위한 기초/심화/추가 진단항목으로 개발 - 조직 ESG 담당자를 위한 업무표준 매뉴얼 개발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v1.0	개발 목적	- 업종별 특화된 ESG 평가 지표 대응 - 조직의 글로벌 ESG 정보공시 표준 대응 강화
	개발 방향	- 글로벌 ESG 공시표준, ESG 평가지표, 업종별 이니셔티브, 업종별 ESG 주요 이슈 분석 - 국내 현황을 고려한 업종별 진단항목 개발
	진단항목 구성	- 총 4개 업종, 21개 범주, 35개 진단항목
	구성 특징	- 목적에 따라 기(既)개발된 가이드라인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식으로 구성

2. ESG 평가기관/자본시장 등 평가대응

- 외부 ESG 평가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ESG 평가기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 v1.0’과 본 가이드라인을 모두 참고하여 경영활동에 반영 필요
 - 조직의 규모, 상장 여부, 평가사의 주요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기(既)개발된 K-ESG 가이드라인 중 해당되는 진단항목을 점검하고, 본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을 함께 활용



3. 공급망 ESG 평가대응 및 체계구축

- (원청사) 공급망 ESG 평가체계 구축 시 활용
 - 동일 업종 내 공급망 협력사 대상 ESG 진단/실사 지표를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는 경우,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과 본 가이드라인의 진단 항목을 함께 활용하여 구성
- (중소·중견기업) 공급망 ESG 평가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고객사의 공급망 ESG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과 본 가이드라인을 모두 참고하여 평가대응 필요
 - 조직의 규모 혹은 업종 특성에 따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심화 진단항목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기초 진단항목 정의서’(12개 범주, 25개 진단항목)와 본 가이드라인 함께 활용 가능
 -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업무표준 매뉴얼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조직의 ESG 경영 내재화 추진



4. 정부 및 유관기관의 산업계 대응 지원체계 수립

- 업종별 ESG 대응 지원에 필요한 방향성 정립
 - 업종별 주요 ESG 특화 이슈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 선정
 - ESG 관련 업종별 이니셔티브의 중점 사안과 정보공시 동향 등을 파악하여 국내 업종별 협·단체의 ESG 경영 도입에 참고



III

Chapter

업종별 ESG 주요 이슈





1. 자동차 업종 ESG 주요 이슈

1. 기후변화

- 2022년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368억 톤 중 수송 부문 배출량은 79억만 8천 톤으로 약 21.7%의 높은 비중 차지
- 사용단계 배출량은 다운스트림 영역에 해당하나 배출량 감소를 위한 규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초점
-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기후변화를 주요 비즈니스 압박 리스크이자 핵심적인 경영 전략으로 다루고 있음
 -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의사 결정 조직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단기 및 중장기적 기후변화 이슈 식별
 - Net Zero 선언 및 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SBTi, 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에 따른 구체적인 감축 목표 제시
 -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 관련 R&D, 생산 및 인프라 투자 강화

주요 기업	이슈 관련 보고 내용
MERCEDES-BEN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부터 자체 생산 현장 Net Zero를 유지하고 있으며 2039년까지 가치사슬 내 모든 단계에서 탄소중립 달성 및 2030년까지 생산 단계 에너지 수요의 7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 -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며 단기적 저탄소 경제 전환 리스크, 장기적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 분석 결과 공개 - 지속가능성 이사회 및 지속가능성 역량 사무국 운영
BM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전체 가치사슬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2019년 CO2 배출량 대비 80% 추가 감축 목표 설정 - 1.5°C 시나리오(SSP1-2.6), 2.5°C 시나리오(SSP2-4.5), 4°C 시나리오(SSP5-8.5) 등에 따라 각각적으로 기후 관련 위험 식별 및 평가 - 2034년까지는 정치, 법무 및 규제, 시장 영향 등 일시적인 전환으로 인한 리스크와 물리적인 기후 리스크를 구분해 관리하고,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물리적 기후 위험을 중점적으로 측정 및 관리
VOLV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년 제조 및 서비스 내 탄소중립 목표 설정 - 기후 리스크 파악 및 Net Zero 전략 수립을 위해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과학 기반 목표 설정을 위한 규범적 시나리오 분석 수행 - 규정, 혁신, 기술 등에서의 기후변화 전환 위험과 주요 사업장 관련 물리적 위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위험 완화 조치 이행 및 보고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감독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과학 기반 목표의 진행 상황 검토

주요 이니셔티브	이슈 관련 요구사항
Drive Sustain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관련 목표 시점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파리협약에 따른 감축 목표 및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수립, 가치사슬 전체의 탈탄소화 이행 명시

2.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 전과정 평가는 제품의 생산, 운송, 사용, 폐기, 재활용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제표준 ISO14040 및 ISO14044에 따라 수행
- 자동차업종에서 제품 전체 수명주기 중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환경 영향이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환경 관련 목표 수립, 기술 개발 및 혁신, 규제 대응, 고객 수요 충족 등을 위한 필수적 선행 과정
 - 특정 단계에서의 환경 부하 감소 기술 개발 및 환경적 성능 개선
 - 정부 등 규제기관의 배출량 기준 및 연료 효율성 요구사항, 법적 요구 등에 따른 차량 설계 및 평가를 가능케 해 규제 대응력 향상
 -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제품의 환경 성과 데이터 공개
- LCA를 통해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을 포함한 공급망 환경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주요 기업	이슈 관련 보고 내용
MERCEDES-BENZ	- 주요 제품의 LCA 내용(차량의 생산-충전-수명 종료 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차량 제품의 에너지 소비량, 물 소비량, 특정 폐기물 배출량 등 공개 - GaBi(Ganzheitliche)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ISO14040/44에 따른 차량별 수명주기를 평가하고 공급망 구매 제품 및 서비스, 차량 재활용 등에서의 추가 간접 CO2 배출량 공개
BMW	- 대표적인 차량 유형에 대한 LCA 수행 및 CO2 배출량 보고 - ISO14040/44 표준 및 GaBi(Ganzheitliche)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CO2, CH4, N2O, SF, NF3, 차량 제품의 구성 요소 및 재료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계산
VOLVO	- 중대성평가(Materiality Assessment) 시 LCA를 통한 수명주기별 환경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해 환경·사회적 외부 위험을 연결함으로써 주요 배출 부문 및 기타 기후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주요 이니셔티브	이슈 관련 요구사항
Drive Sustainability	- LCA 관련 국제표준에 따라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오염 배출을 측정 및 감축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전반적인 환경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예방적 노력과 책임 이행

3. 에너지 및 온실가스

-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요구가 심화되면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고연비 차량 시장 확대
 - 에너지 효율의 증가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수요 감소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친환경 차량 선호가 높아지는 시장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
- 자동차 배기관 배출량 감축 및 자동차 중량 감소를 위해서는 연료 효율성이 높은 부품이 필요하므로 완성차와 부품 제조업체 모두 연비 향상을 위한 경량 소재의 차량 설계 및 관련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주요 기업	이슈 관련 보고 내용
MERCEDES-BEN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에너지 충전 속도 및 전반적인 성능 고도화로 에너지 효율 향상 - 자동차와 밴의 전기, 천연가스, 연료 및 기타 에너지원 사용량이 2021년 대비 2022년 약 11% 감소 - Mercedes-Benz SUSTANEER 모델에 저소음 전기 구동 시스템 및 저(低)저항 타이어, 실시간 효율 경로를 제시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와 통신 솔루션을 탑재해 주행 거리 단축 및 에너지 소비 저감
BM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효율화 기술 투자, 생산 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차량당 자원 소비량을 2006년 대비 2021년 평균 약 60% 절감 - 엔진 기술, 공기역학 및 경량 구조에서의 연료 소비 저감 기술을 활용해 기존 드라이브 트레인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노력
VOLV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연소 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투자 - 트럭, 버스, 건설 장비, Volvo Penta 등 차종에 따른 배출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목표 대비 각 차종의 사용 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에너지 효율 조치에 따른 판매량 및 배출량 영향 설명
주요 이니셔티브	이슈 관련 요구사항
Drive Sustain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 전체 가치사슬의 탈탄소화 추진 조치 명시 요구

4. 순환경제

- 차량 소유 비율 증가는 수명 만료 차량의 증가 및 자동차 수명주기에 따른 환경 영향의 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개념 확대
 - EPR이란 기업이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위해 사전 설계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판매 이후 제품 회수 및 회수된 제품에 대한 재활용, 재사용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개념
 - 관련 노력으로는 재활용과 재사용이 용이한 부품 설계, 설계 시 모듈화(modularity) 원칙 적용, 안전한 폐기와 재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회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음
- 폐기물 감축, 폐기 차량 및 부품 재사용은 완성차와 부품 기업의 생산 비용 효율 및 자원 이용 경쟁력 향상에 기여
 - 폐기물 재활용은 비용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촉진하며 부정적 환경 영향에 대한 규제 비용 저감, 자원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 내 투입물 가격 변동 및 공급 차질 리스크 완화
- 특히 전기차 제조 비율이 지속 확대하는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 및 부품 재활용이 업계의 주요 이슈로 대두됨

주요 기업	이슈 관련 보고 내용
MERCEDES-BEN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경제를 주요 환경 목표로 설정하고 자체 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 - 기술 혁신을 통해 96% 이상의 배터리 재활용을 목표로 하며, 차량 개발 과정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고려하는 등 순환적 설계 접근 방식 사용
BM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경제 비전을 수립하고 2차 소재(Secondary Materials) 비중 확대, 재활용 공정을 고려한 차량 구조 및 디자인 적용, 배터리 재활용 등 목표 공개 - 고전압 배터리 재료의 90% 이상을 회수하기 위한 신규 공정 개발, BEV 및 PHEV 모델의 고전압 저장 장치 재활용 등 구체적인 조치 수행 - 수명 만료 차량의 재활용을 위해 전 세계 약 3,000개의 수거 지점 관리, 배터리 구동 차량 고객을 대상으로 고전압 배터리 무료 회수 서비스 제공
VOLV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성 및 재제조에 대한 설계 기준 평가 - 재사용 및 재활용 저해 물질 파악 및 사용 회피

주요 이니셔티브	이슈 관련 요구사항
Drive Sustain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저감, 제품 및 부품의 재사용·재활용 확대,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 활용 등 폐쇄 루프 시스템을 촉진하는 자원 순환성 요구

5.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의 안정적 지속에 필수적이며, 다양성 저하 시 식량 안보 위험, 물 순환 방해, 질병 증가 등 부정적 결과 초래
 -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 지역사회 문제 등 타 ESG 요소와 상호 연결되므로 생물다양성 이슈 관리는 전체적인 ESG 전략에도 기여
-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기업에 경제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농업, 제약, 관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중단, 생산비용 증가 등 재정적 위험으로 작용
- 정부 및 국제기구의 규제 압력, 이해관계자 요구 증가
 - TNFD는 자연의 변화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리스크를 점검 및 평가해 고객,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
-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생물다양성 저해 및 손실 리스크 점검, 지역사회 생물다양성 보전·복원·확대를 위한 접근 방식 확인, 관련 중장기 목표 수립 및 내재화 수준 점검 등의 노력 필요

주요 기업	이슈 관련 보고 내용
MERCEDES-BEN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내 일부 공장은 자체 개발한 생물다양성 지수(BIX)를 사용해 현장평가수행, BIX(Biodiversity Index) 지수는 레벨 0(생태 중요성 없음)부터 레벨 V(생태 중요성 매우 높음) 단계로 나뉘어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한 잠재적 요인 평가 - 독일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권장 사항 개발, 독일 환경단체 NABU(Nature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Union)의 자문 및 협력으로 다양한 생태 공간 조성 - 공급망에도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환경 분야 지속가능성 요구사항 강화
BM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내 부지에서 신규 건설 및 생산부지 확장 시 EU 지침 2011/92/EU에 따라 물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 EU 외부 지역에서도 EU 요구사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수행 - ISO14001에 따라 인증된 환경관리 시스템을 그룹 내 모든 생산 현장에 구현하고 현지 법적 요구사항 충족
VOLV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운영, 공급망, 제품 사용 단계 등 전체 가치사슬 관점에서 생물다양성 이슈를 고려 및 관리하며, 업스트림의 공급망 파트너까지 자사와 유사한 요구사항에 따라 평가 - 새로운 생산시설 설립 시 보호지역 및 생물종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완화 절차 준수

주요 이니셔티브	이슈 관련 요구사항
Drive Sustain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생태계, 특히 자사 운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을 보호해야 하며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결의안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함해 국제 생물다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함

6. 고객 관계

- 자동차업종에서 고객 관계란 제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 차량 및 부품 안전과 리콜 시스템, 사후 관리 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고객의 충성도 및 구매 유지율에 따라 비즈니스 지속가능성에 영향
- 제품의 품질이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의 특성상 품질 관리 및 리콜제도는 완성차 및 부품 제조기업의 핵심 관리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목표, 전략, 관리 시스템 필요
 - 고도화된 전자 기술이 자동차에 통합되면서 리콜 위험성 증가
 - 차량 판매 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제조사 비용으로 차량이 리콜되어 기업 재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업 수익과 평판 및 성장 가능성을 감소시키므로 결함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 필요
-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우 안전 성과와 신뢰도를 기준으로 원청사의 평가를 받으므로 위탁생산업체(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와의 관계 유지에 필수적
- 고객 서비스 채널은 구매 경험의 주요 부분이므로 판매영업점 및 CS 관련 부서의 고객 응대 매뉴얼, 정비 및 수리 센터의 표준 정비지침 등 관련 기준 마련이 권고됨

주요 기업	이슈 관련 보고 내용
MERCEDES-BEN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보유 차량이 안전 적합성 또는 배기가스 배출 측면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경우 확립된 평가 및 규제 프로세스를 적용해 서비스 조치 수행 또는 차량 리콜 - 충돌 위험 시 시청각적 경고 및 차량 제동을 수행하는 Active Brake Assist 시스템, 차량 온도 및 전압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한 다단계 안전 시스템을 장착해 사고 예방 보조 시스템 마련 - 서비스 핫라인, 모바일 앱, 소셜미디어, 피드백 및 설문조사,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운전 습관 기반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고객 경험 향상
BM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돌 및 차선 이탈 경고 등 능동 안전 시스템, 사고 충격을 완화하는 첨단 안전 시스템 장착 - 원격 차량 제어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 지원 기능에 액세스 가능한 BMW Connected Drive 플랫폼, 제품 전문가가 고객 질문에 답변하고 BMW 차량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Genius 프로그램 등 제공
VOLV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 위험 감지 및 비상제동 등의 안전 관련 혁신 기술을 선구적으로 개발해왔으며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안전 시스템 개발 노력 지속 - 전 제품 라인의 설계 안전성 확인 및 품질 개선을 위해 건강 및 안전영향 사전 평가 수행, 시장 출시 후 안전 관련 결함 확인 시 제품 리콜 - 안전 운전 장려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프로그램 이행 - 원격 차량 제어 및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에 액세스 가능한 Volvo On Call 서비스 제공

7. 윤리경영

- 윤리경영은 지속 가능한 경영 프로세스 수립 및 추진의 핵심 요소이자 법적 규제 및 브랜드 평판, 투자자 신뢰 및 자본 유치 등의 주요인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경쟁적 사업 관행은 중요한 거버넌스 사안으로, 광범위한 부품이 존재하는 만큼 각 부품 시장 범주 내에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경우 주요 생산 기업이 높은 지배력을 행사해 반독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의 공모 및 가격 담합은 궁극적으로 차량 가격 상승을 야기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이러한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제재 부과 및 평판 손상으로 기업가치나 재무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주요 기업	이슈 관련 보고 내용
MERCEDES-BEN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방지, 인권 옹호, 데이터 관리 및 기술 제품 요구사항 준수 규정을 포함한 윤리강령을 10개 언어로 제공 - 자국 및 글로벌 표준을 고려해 독점 금지 사안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정의하는 구속력 있는 독점 금지 준수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자문 핫라인 등을 통해 전 세계 직원들의 독점 금지 규정 준수 지원 - 그룹 관리 체계 내에서 각 회사의 경영 활동 모니터링, 의혹 여부와 관계없이 독점금지법 및 내부 규정 준수 여부 조사
BM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준수를 위한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관련 정기 및 임시 보고 시행 - 예방·탐지·대응 모델을 기반으로 역할과 책임을 할당하는 전사 규정 준수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부패 및 사기 방지, 자금세탁 방지, 독점 금지 및 인권 준수, 수출통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제품 규정 준수 지원
VOLV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 비즈니스 파트너 역시 유사한 원칙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해당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포함 -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법 위반 리스크를 파악해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 경쟁법 정책 및 지침, 모범 사례가 포함된 행동강령 공개 - 기업의 규정 준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쟁 및 부패방지법, 수출통제 규정,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서의 정책, 지침 및 절차,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효율성 테스트 및 감사 활동 수행
주요 이니셔티브	이슈 관련 요구사항
Drive Sustain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수준의 청렴성 유지, 부패 방지 및 자금세탁 방지, 투명한 비즈니스 거래 및 이에 대한 기록 등을 요구

<업종별 ESG 이슈 분석 자료>

업종	분석 자료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I Standard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SASB Standards」,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 「CDP Climate Change 2023 Reporting Guidance」, CDP, 2023 ·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2017 · 「TNFD Framework」, 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1 · 「CO2 Emissions in 2022」, IEA, 2023 · 「Automotive Sustainability Guiding Principles 4.0」, Drive Sustainability · 「Volvo Group Annual Report 2022」, Volvo Group, 2023 · 「Sustainability Report 2022」, Mercedes-Benz Group, 2023 · 「BMW Group Report 2022」, BMW Group, 2023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P Climate Change 2023 Reporting Guidance」, CDP, 2023 · 「Annual Report 2022」, ArcelorMittal, 2022 · 「ArcelorMittal Integrated Annual Review 2022」, ArcelorMittal, 2023 · 「Reporting Index 2022」, ArcelorMittal, 2023 · 「Climate Action Report 2」, ArcelorMittal, 2021 · 「Fact Book 2022」, ArcelorMittal, 2023 · 「Basis of Reporting 2022」, ArcelorMittal, 2023 · 「Sustainability Report 2022」, Aperam, 2023 · 「Sustainability Report FY2023」, BlueScope, 2023 · 「Sustainability Data Supplement FY2023」, BlueScope, 2023 · 「ResponsibleSteel International Standard v2.0」, ResponsibleSteel, Steel Stewardship Council, 2022 · 「Antitrust Compliance Policy v4」, ResponsibleSteel, 2017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2021. 7. 6. 시행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21. 7. 1. 시행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21. 10. 14. 시행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P Climate Change 2023 Reporting Guidance」, CDP, 2023 · 「CDP Water Security 2023 Scoring Methodology」, CDP, 2023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 「Annual Progress Report from the Oil and Gas Climate Initiative」, OGCI, 2022 · 「The Product Carbon Footprint Guideline for the Chemical Industry 2.0」, Together for Sustainability, 2022 · 「Audit Preparation Checklist」, Together for Sustainability · 「Chemical Supply Chains for a Better World」, Together for Sustainability, 2023 · 「Responsible Care Global Charter」,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 2014 · 「ICCA: Responsible Care® and Our Contributions to Sustainabilit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 · 「BASF Report 2022」, BASF, 2023 · 「2022 PROGRESS REPORT」, DOW, 2023 · 「Sustainability Report 2023」, Dupont, 2023 · 「Understanding REACH」, ECHA, https://echa.europa.eu/regulations/reach/understanding-reach

업종	분석자료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P Climate Change 2023 Reporting Guidance」, CDP, 2023 ·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2017.6 · 「GRI Standard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SASB Standards」,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 ver. 7.0」,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 「Transparency, Ambition, and Collaboration: Advancing the Climate Agenda of the Semiconductor Value Chain」, BCG&Semiconductor Climate Consortium · 「2022-23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Intel, 2023 · 「2022 Annual Report on Form 10-K」, Intel, 2023 · 「Intel 2022 Water Restoration Progress Report」, Intel, 2023 · 「2022-23 AMD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AMD, 2023 · 「ASML Annual Report 2022」, ASML, 2023 · 「TCFD Report: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ASML, 2023 · 「TSMC 2022 Sustainability Report」, TSMC, 2023 · 「Biodiversity Statement」, TSMC, 2023 ·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삼성전자, 2023

IV

Chapter

진단 항목 정의서





1. 진단 항목 구성

44

2. 자동차 업종 진단 항목 정의서

50

1. 진단 항목 구성

1. 진단 항목 구성 개요

-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분류 체계
 - (영역) 기존의 K-ESG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정보 공시(Public),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3개 영역의 대분류 기준 준용
 - (범주) 글로벌 ESG 공시/평가 기준 및 업종별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한 이슈를 기반으로, 조직이 ESG 경영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설정
 - (진단 항목) 가이드라인의 각 '범주'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정성·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세부 항목
- 진단 항목 정의서의 구성 체계
 - (항목 정의서) 조직의 ESG 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 설명, 점검 기준 및 단계 등 진단에 대한 방향성과 예시 제공
 - (추가 설명) 각 진단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한 ESG 경영의 방향성과 성과 점검 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진단 항목에 따라 대체 점검 기준과 활용 근거 설명 기술
 - (용어 정의) 항목 정의서 및 추가 설명 중 별도로 기술이 필요한 용어 정의
 - (참고 자료) 항목 정의서에 기술된 설명, 산식, 해외 유사 지표 제시(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정보 출처 제시)

2. 진단 항목 정의서의 구성

- 개별 진단 항목 정의서 내 구성 체계
 - (분류번호) 업종 특화 항목은 '업종-영역-항목'의 3단 구성으로 진단 항목 분류
 - (항목 설명) 해당 항목의 진단 목적·내용·방법 등을 함축적으로 제시
 - (성과 점검) 해당 항목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원천', '데이터 기간', '데이터 범위', '데이터 산식'을 제시하고 해당 자료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 설명
 - (점검 기준) '성과 점검'에서 확인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조직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단계별 기준 제시(3~5단계)
 - (적용 방안) '점검 기준'으로 확인한 조직의 ESG 성과를 조직 간, 항목 간, 영역 간 비교 가능하도록 진단 항목별 100점 기준으로 5단계, 혹은 3단계 배점
 -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3~5단계의 배점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외 주요 ESG 평가기관에서는 1) 서열척도, 2) 등간척도(100점), 3) 비율척도 형태로 활용하기도 함
 - (점검 기준 유형)
 - ① 단계형 1: 정성/정량 기준에 따라 3~5단계 설정
 - ② 단계형 2: 추세 비교 후 각각의 점수를 산술평균
 - ③ 선택형: 제시된 요건 중 해당 항목 수에 따라 수준 산정
 - ④ 감점형: 제시된 요건에 해당되는 항목 수에 따라 감점→ 추가 설명을 통해 ESG 성과 점검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 제시

3. 주요 공통 개념의 정의

- 진단 항목 정의서 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개념은 아래와 같음
 - (원단위(per unit)) 어떤 제품/용역 1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된 재화(자본, 시간, 에너지 등) 혹은 배출량을 측정하는 개념. 기업 간 규모를 고려하여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추세) 일정 기간 정량적 자료의 변동 방향성을 의미하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4개년 데이터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추세로 정의
 - * 연평균 성장률>0인 경우 ‘증가한다’, 연평균 성장률<0인 경우 ‘감소한다’로 정의
 - CAGR 대상 기간에 대한 연간 복리 평균 성장률을 의미

$$CAGR(t_0, t_n) = \left(\frac{V(t_n)}{V(t_0)} \right)^{\frac{1}{t_n - t_0}} - 1 \quad V(t_n): \text{마지막년도 값}, V(t_0): \text{최초년도 값}$$

- (업종 평균) 통계청, e-나라지표, 고용노동통계 데이터베이스, 산업재해통계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단 항목과 각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참고하여 관련된 데이터의 업종별 평균값을 확인 할 수 있음. 단, 공시된 자료가 없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활용 주체에 따라 업종 평균을 별도로 정의하여 대체 활용 가능하도록 함

4. 진단 항목 정의서의 특징

- 진단 항목의 단계별 상세 기준 및 방향성 제시
 - 국내외 ESG 평가지표의 경우 ESG 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 미공개로 피평가 기업들의 자가 진단 불가능 및 과도한 비용과 노력 소요
 -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 항목은 단계별 상세 기준 및 방향성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들이 진단 항목의 기준 및 방향성을 파악하여 스스로 성과를 진단하고 ESG 성과 목표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 글로벌 지표와의 정합성, 한국적 특성 반영, 법/제도의 정합성을 반영하여 실제 경영 환경에서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자가 진단을 위해 진단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
 - ESG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 관련 정보를 진단 항목 체계를 통해 제공
 - ESG 경영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제를 각 영역(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하위 범주로 구성하여 정보 제공
 - 개별 진단 항목 개발 시, 단계별 기준에 대한 기준 제시 및 추가 설명을 통해 ESG 자가 진단을 위한 상세한 정보 제공
 - 각 영역의 범주별 ESG 수준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제공
- 기존의 K-ESG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활용
 - 보편적 주제 관련 기업의 ESG 수준 및 성과는 기(既)배포된 ‘K-ESG 가이드라인’ 및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 항목을 활용하여 진단 가능
 - 산업계의 니즈를 고려하여 업종별 이니셔티브 등에서 요구하는 업종 특화 주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업종별 특화 진단 항목 제시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 제시
 -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은 해당 업종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기업의 ESG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초점
 - 기업이 자체적으로 ESG 현황과 수준을 진단할 경우 ESG 경영 목표 수립이 용이하도록 진단 항목 구성
 - 그 외에도 평가 및 검증기관이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ESG 수준 평가 및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K-ESG 가이드라인 진단 항목 구성표>

영역	범주	진단 항목	K-ESG 가이드라인 v1.0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v1.0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정보 공시(P)	정보 공시 형식	ESG 정보 공시 방식	P-1-1	P-1-1		
		ESG 정보 공시 주기	P-1-2	P-1-2		
		ESG 정보 공시 범위	P-1-3	P-1-3		
	정보 공시 내용	ESG 핵심 이슈 및 KPI	P-2-1			
	정보 공시 검증	ESG 정보 공시 검증	P-2-2	P-1-4		
환경(E)	환경경영 목표 및 체계	환경경영 목표 수립	E-1-1			
		환경경영 추진체계	E-1-2	E-1-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비율		E-1-2		
		환경정책 수립		E-1-3		
		환경 인허가 획득		E-1-4		
	원부자재	원부자재 사용량	E-2-1	E-2-2		
		재생 원부자재 비율	E-2-2			
		폐제품 수거 및 재활용		E-2-1		
	온실가스 및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 Scope 2)	E-3-1	E-3-3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E-3-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E-3-3	E-3-4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E-3-1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자동차-E-1	
		전기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자동차-E-2	
		에너지 사용량	E-4-1	E-3-2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E-4-2			
	용수	용수 사용량	E-5-1	E-6-2		
		재사용 용수 비율	E-5-2			
		용수 및 폐수 관리		E-6-1		

영역	범주	진단 항목	K-ESG 가이드라인 v1.0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v1.0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폐기물	폐기물 배출량	E-6-1	E-4-3		
		폐기물 재활용 비율	E-6-2			
		제품 회수 프로그램			자동차-E-3	
	유해 물질	제품 내 유해 물질 관리		E-4-1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		E-4-2		
	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E-7-2	E-6-3		
		대기 및 소음 관리		E-5-1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법/규제 위반	E-8-1			
	환경 라벨링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E-9-1			
		전과정 평가			자동차-E-4	
	사회(S)	목표	목표 수립 및 공시	S-1-1		
		노동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S-2-1		
정규직 비율			S-2-2	S-1-1		
자발적 이직률			S-2-3			
교육훈련비			S-2-4			
복리후생비			S-2-5			
결사의 자유 보장			S-2-6	S-1-2		
단체교섭 및 집회 참여				S-1-3		
다양성 및 양성평등		여성 구성원 비율	S-3-1	S-3-1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S-3-2	S-3-2		
		장애인 고용률	S-3-3	S-3-3		
산업안전		안전보건 추진체계	S-4-1	S-4-1		
		산업재해율	S-4-2	S-5-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비율		S-4-2		
		안전보건 인허가 획득		S-4-3		
작업 환경 개선		작업 환경 측정		S-5-1		
		설비 기계 안전 사용		S-5-2		
		위험성 평가		S-5-3		

영역	범주	진단 항목	K-ESG 가이드라인 v1.0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v1.0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산업재해 예방		비상 상황 대응체계		S-6-1	
		소방안전 관리		S-6-2	
		비상 출구 시설관리		S-6-3	
		환경 및 식품위생 관리		S-6-4	
		안전보건 의사소통		S-6-5	
제품 및 서비스 품질		리콜 및 판매보증비			자동차-S-1
		서비스 채널 품질 관리			자동차-S-2
인권		인권 정책 수립	S-5-1	S-2-1	
		인권 리스크 평가	S-5-2		
		강제근로 금지		S-2-2	
		아동노동 금지		S-2-3	
		근무시간 준수		S-2-4	
		임금 산정 및 지급		S-2-5	
		고충처리 절차		S-2-6	
동반 성장		협력사 ESG 경영	S-6-1		
		협력사 ESG 지원	S-6-2		
		협력사 ESG 협력사항	S-6-3		
		책임 원자재 조달 정책		S-7-1	
		원자재 생산지 리스크 점검		S-7-2	
지역사회		전략적 사회공헌	S-7-1	S-8-1	
		구성원 봉사 참여 / 구성원 사회봉사	S-7-2	S-8-2	
정보보호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S-8-1	S-9-1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S-8-2	S-9-2	
고객 관계		고객 만족 대응체계		S-10-1	
		광고 및 홍보 윤리		S-10-2	
사회 법/규제 위반		사회 법/규제 위반	S-9-1		

영역	범주	진단 항목	K-ESG 가이드라인 v1.0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v1.0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지배구조(G)	이사회 구성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G-1-1		
		사외이사 비율	G-1-2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G-1-3		
		이사회 성별 다양성	G-1-4		
		사외이사 전문성	G-1-5		
	이사회 활동	전체 이사 출석률	G-2-1		
		사내이사 출석률	G-2-2		
		이사회 산하 위원회	G-2-3		
		이사회 안건 처리	G-2-4		
	주주 권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G-3-1		
		주주총회 개최일	G-3-2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G-3-3		
		배당정책 및 이행	G-3-4		
	윤리경영	윤리규범 위반 사항 공시	G-4-1	G-1-6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G-1-1	
		비윤리 행위 예방 조치		G-1-2	
		반경쟁 행위 예방 조치		G-1-3	
		공익제보자 보호		G-1-4	
		정보공개 투명성		G-1-5	
		반경쟁 행위 위반 사항 공시			자동차-G-1
	감사기구	내부 감사 부서 설치	G-5-1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G-5-2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G-6-1		

2. 자동차 업종 진단 항목 정의서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자동차-E-1	환경	온실가스 및 에너지						
항목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생산 및 판매하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을 향상시켜 운용 시 경제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 • 국가 또는 권역별 인증 에너지소비효율(연비) 수치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가별 인증치와 국가별 해당 차종의 판매량을 가중평균하여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연비) 확인 								
성과 점검	<p>조직이 국내외 제3자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측정한 복합 연비(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연비 가중평균) 수치를 통해 기술 개발을 통해 효율성 증대를 높이려 노력하였는지 확인하며, 지난 4개년의 연비가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p> <p>[데이터 원천]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포털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text{평균연비} = \sum [\text{해당 차종 인증연비} \times (\text{해당 차종 판매량} / \text{전체 자동차 판매량})]$</p>								
점검 기준	<p>1단계 지난 4개년간 조직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연비 감소 추세</p> <p>2단계 지난 4개년간 조직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연비 변동 없음</p> <p>3단계 지난 4개년간 조직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연비 증가 추세</p> <p>* 조직이 연도별 평균 연비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0점 적용</p>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thead> <tr> <th>1단계</th> <th>2단계</th> <th>3단계</th> </tr> </thead> <tbody> <tr> <td>0점</td> <td>50점</td> <td>100점</td> </tr> </tbody> </table>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이 제조 및 판매하는 자동차의 연료 및 탄소 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취합하고, 연도별 개선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연료 및 탄소 효율성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 고려 시 고려군에 속하는 제품의 환경 영향력(온실가스 배출)을 파악하고 제조업체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혁신과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수치 데이터를 제공한다.
- 국내 또는 국외에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text{계산 산식: 조직에서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연비)} = \frac{\sum [\text{자동차 차종별 인증 연비} \times (\text{해당 차종 판매량} / \text{전체 자동차 판매량})]}{\sum [\text{자동차 차종별 인증 연비} \times (\text{해당 차종 판매량} / \text{전체 자동차 판매량})]}$$

-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판매된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CAFE(미국), NEDC(유럽), WLTP(유럽), CAFC(중국) 등 각 국가 및 권역별 에너지 소비효율(연비) 인증 수치를 활용하여 가중평균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활용하여 지난 4개년간 조직이 판매한 차량의 평균 연비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상 기간에 평균 몇 퍼센트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복리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지난 4개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을 기점으로 ‘+’수치를 보일 경우 ‘증가한다’, ‘-’수치를 보일 경우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으며, ‘0’이 아닌 다른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용어 정의

-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미국의 자동차 연비 관리 정책으로 한 기업이 당해 연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차종별 연비에 판매 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 과거 EU에서 개발하여 채택했던 연비 측정 방식으로 2017년부터는 NEDC가 아닌 WLTP 기준을 채택하여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 UN 국제표준화포럼(WP.29)에서 승인한 새로운 실내 시험 방법으로 NEDC 대비 시험 방법이 현실화되어 측정 배출가스 양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 CAFC(Corporate Average Fuel Consumption): 중국 자동차 연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럽에서 사용한 NEDC 모드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평균 연비를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참고 자료

- 「보도설명자료 경유차 규제강화 WLTP 도입」, 환경부, 2017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COMPASS 포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GRI Standards – 302(Energy)」,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 「CSA(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S&P Global Inc., 2023
- 「SASB Standards – Automobiles」,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23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자동차-E-2	환경	온실가스 및 에너지						
항목	전기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생산 및 판매하는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연비)를 향상시켜 운용 시 경제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 • 국가 또는 권역별 인증 에너지 소비효율(연비) 수치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가별 인증치와 국가별 해당 차종의 판매량을 가중평균하여 평균 연비 확인 								
성과 점검	<p>조직이 국내외 제3자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측정한 복합 연비(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연비 가중평균) 수치와 기술 개발을 통해 효율성 증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확인하며, 지난 4개년의 연비가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p> <p>[데이터 원천]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포털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text{평균연비} = \sum [\text{해당 차종 인증 연비} \times (\text{해당 차종 판매량} / \text{전체 전기자동차 판매량})]$</p>								
점검 기준	<p>1단계 지난 4개년간 조직이 판매한 전기자동차의 평균 연비 감소 추세</p> <p>2단계 지난 4개년간 조직이 판매한 전기자동차의 평균 연비 변동 없음</p> <p>3단계 지난 4개년간 조직이 판매한 전기자동차의 평균 연비 증가 추세</p> <p>* 조직이 연도별 평균 연비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0점 적용</p>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thead> <tr> <th>1단계</th> <th>2단계</th> <th>3단계</th> </tr> </thead> <tbody> <tr> <td>0점</td> <td>50점</td> <td>100점</td> </tr> </tbody> </table>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이 제조 및 판매하는 자동차의 연료 및 탄소 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취합하고, 연도별 개선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연료 및 탄소 효율성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 고려 시 고려군에 속하는 제품의 환경 영향력(온실가스 배출)을 파악하고 제조업체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혁신과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수치 데이터를 제공한다.
- 국내 또는 국외에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text{계산 산식: 조직에서 판매한 전기자동차의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연비)} = \frac{\sum[\text{전기자동차 차종별 인증연비} \times (\text{해당 차종 판매량} / \text{전체 전기자동차 판매량})]}{\sum[\text{전기자동차 차종별 인증연비} \times (\text{해당 차종 판매량} / \text{전체 전기자동차 판매량})]}$$

-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판매된 전기자동차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CAFE(미국), NEDC(유럽), WLTP(유럽), CAFC(중국) 등 각 국가 및 권역별 에너지소비효율(연비) 인증 수치를 활용하여 가중평균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활용하여 지난 4개년간 조직이 판매한 차량의 평균 연비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상 기간에 평균 몇 퍼센트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복리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지난 4개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을 기점으로 ‘+’수치를 보일 경우 ‘증가한다’, ‘-’수치를 보일 경우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으며, ‘0’이 아닌 다른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용어 정의

- 전기자동차: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66호)에서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기술적 요건에 대해서도 언급.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도 열거하고 있음
-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미국의 자동차 연비 관리 정책으로 한 기업이 당해 연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차종별 연비에 판매 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 과거 EU에서 개발하여 채택했던 연비 측정 방식으로 2017년부터는 NEDC가 아닌 WLTP 기준을 채택하여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 UN 국제표준화포럼(WP.29)에서 승인한 새로운 실내 시험 방법으로 NEDC 대비 시험 방법이 현실화되어 측정 배출가스 양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 CAFC(Corporate Average Fuel Consumption): 중국 자동차 연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럽에서 사용한 NEDC 모드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평균 연비를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참고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 한국에너지공단_자동차 연비표시제도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COMPASS 포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GRI Standards – 302(Energy)」,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 「CSA(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S&P Global Inc., 2023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자동차-E-3	환경	폐기물						
항목	제품 회수 프로그램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신제품 개발부터 판매 시점 이후 제품 폐기 단계까지 제품의 전 수명주기 단계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 • 제품 수명주기 관리는 순환경제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으며, 제품 설계상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구성 요소 및 원자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점검 								
성과 점검	<p>조직이 직전 4개년의 설계 단계에서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한 제품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지난 4개년간 회수한 폐제품의 재활용, 재사용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p> <p>[데이터 원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조직의 폐제품 수거 및 재활용, 재사용 실적 근거(제3자를 통한 수거 및 재활용, 재사용 실적포함) [데이터 기간] 직전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1)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의 매출액/총 매출액 (2) 재사용 또는 재활용(에너지 회수 포함)된 중량/총 회수된 중량</p>								
점검 기준	<p>추세(1/2)</p> <p>1단계 지난 4개년간 판매한 제품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의 비율 감소 추세</p> <p>2단계 지난 4개년간 판매한 제품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의 비율 변동 없음</p> <p>3단계 지난 4개년간 판매한 제품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의 비율 증가 추세</p> <p>추세(1/2)</p> <p>1단계 지난 4개년간 회수된 제품(중량 기준) 중 재사용 및 재활용(에너지 회수 포함)한 비율 감소 추세</p> <p>2단계 지난 4개년간 회수된 제품(중량 기준) 중 재사용 및 재활용(에너지 회수 포함)한 비율 변동 없음</p> <p>3단계 지난 4개년간 회수된 제품(중량 기준) 중 재사용 및 재활용(에너지 회수 포함)한 비율 증가 추세</p> <p>* 판매한 제품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비율이 100%인 경우 3단계 적용</p>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p>*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하여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목표 수립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1/2+추세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1/2</p> <table border="1"> <thead> <tr> <th>1단계</th> <th>2단계</th> <th>3단계</th> </tr> </thead> <tbody> <tr> <td>0점</td> <td>50점</td> <td>100점</td> </tr> </tbody> </table>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최근 생산자에 대한 환경적 책임과 관련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EPR 기업들이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위해 사전 설계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관리하는 개념이다. 또한 판매 이후 제품 회수 및 회수된 제품에 대한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부분도 생산자가 책임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관련 법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 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제정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제23조(폐자동차의재활용비용)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한다.

- EU 자동차 폐차 규정 개정안(End-of-Life Vehicles Regulation)
최근 EU에서 2차 원자재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ELV(End of life vehicles regulation)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폐차 회수 목표 확대, 투명성 및 데이터 누락 방지를 위한 온라인 등록 시스템 운영, 적용 대상 차종 확대, 환경오염 및 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화 차량 수출금지 등을 통해 핵심 원자재, 플라스틱,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순환경제 활성화(신차에 사용된 플라스틱의 25%는 반드시 재활용 플라스틱이어야 함 등)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 폐차의 해체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해야 하며, 해체 업자에 대해 교체 및 부품 제거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용어 정의

- 재활용: 폐전기·폐전자 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
- 에너지 회수: 에너지 회수란 가연성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의 동반 소각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 소각하여 열 회수 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

참고 자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부
- 「End-of-life vehicles Regulation」, European Commission
- 「DIRECTIVE 2000/53/EC」,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CSA(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S&P Global Inc., 2023
- 「SASB Standards – Automobiles」,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23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자동차-E-4	환경	환경 라벨링						
항목	전과정 평가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통해 제품의 생산, 운송, 사용, 폐기의 수명주기 과정에서 환경과 관련된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이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 국내외 공인된 규격(ISO14040, ISO14044 등)에서 제시하는 전과정 평가 요건을 따르거나, 준용하여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성과 점검	조직의 지난 4개년간 전과정 평가(간략 전과정 평가 포함)를 수행한 제품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조직별 홈페이지', '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전과정 영향 평가를 수행한 제품의 수/조직이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의 수								
점검 기준	추세 1단계 지난 4개년간 전과정 평가를 수행한 제품의 비율 감소 추세 2단계 지난 4개년간 전과정 평가를 수행한 제품의 비율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4개년간 전과정 평가를 수행한 제품의 비율 증가 추세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1단계</th> <th>2단계</th> <th>3단계</th> </tr> </thead> <tbody> <tr> <td>0점</td> <td>50점</td> <td>100점</td> </tr> </tbody> </table>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전과정 평가(ISO14040 및 14044 등)란 ISO14040 및 ISO14044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위한 국제표준이다. 전과정 평가는 생산, 운송, 사용,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전과정 평가를 통해 분석하는 환경 영향이란 생태계, 인간 보건 및 천연자원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조직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적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 전과정 평가 수행의 기대 효과

- 전반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기업, 환경을 고려한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 파악 및 개선 계획 수립 지원
- 조직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환경적 성능을 개선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
- 전과정 평가를 통해 향후 강화될 환경 관련 법적 요구(환경 부담금 등)에 대한 대응력 향상
-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장기적 이익 증대

• 전과정 평가는 크게 1) 전과정 평가의 목표 및 범위 정의, 2) 측정 대상의 모든 환경적 투입 및 산출 데이터 분석, 3) '기후변화' 또는 '부영양화'와 같은 환경 영향 범주를 선택하여 해당 범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4) 분석된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개선 사항 검토 등 4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 전과정 평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체 전과정 평가와 간략 전과정 평가로 나눌 수 있다. 각 유형별 평가 방식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한다.

- 간략 전과정 평가(Simplified Life Cycle Assessment): 간략 전과정 평가는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과정 단계의 제품 환경 영향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다. 간략화는 두 가지 다른 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하나는 2차 자료 활용 및 특정 단계 생략 등을 통한 자료수집의 노력을 줄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환경 영향 중 특정 환경 영향이나 주요 인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 전체 전과정 평가(Full Life Cycle Assessment): 전체 전과정 평가는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포함하며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환경 영향 분석을 수행한다. 전과정 평가에서 언급하는 환경 데이터는 일반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검토 중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용어 정의

- ISO14040: ISO14040은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원칙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목적 및 범위 설정
- ISO14044: ISO14044는 LCA 실행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측정 지원

참고 자료

- 「ISO14040 Environmental management – Life cycle Assessment – principles and framework」
- 「ISO14044 Environmental management – Life cycle Assessment – Requirements and guidelines」
- 「Life Cycle Assessment Best Practices of ISO14040 Serie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2004
- 「CSA(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S&P Global Inc., 2023
- 「SASB Standards – Automobiles」,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23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자동차-S-1	사회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항목	리콜 및 판매보증비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규제 당국 또는 기관의 지시에 의해 강제적(비자발적)으로 회수한 리콜된 제품 수량의 증감 추이 확인 • 조직의 규모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 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매출액 대비 판매보증비 비율 점검 								
성과 점검	<p>조직의 지난 4개년간 강제적(비자발적) 리콜 제품의 수량 및 매출액 대비 판매보증비 비율의 증감 추세 측정</p> <p>[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상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매출액 대비 판매보증비 비율=총 판매보증비/매출액</p>								
점검 기준	<p>강제적(비자발적) 리콜 차량 대수 (1/2)</p> <p>1단계 지난 4개년간 강제적(비자발적) 리콜 제품의 수 증가 추세</p> <p>2단계 지난 4개년간 강제적(비자발적) 리콜 제품의 수 변동 없음</p> <p>3단계 지난 4개년간 강제적(비자발적) 리콜 제품의 수 감소 추세</p> <p>원단위 대비 판매보증비 비율 (1/2)</p> <p>1단계 지난 4개년간 매출액 대비 판매보증비 비율 증가 추세</p> <p>2단계 지난 4개년간 매출액 대비 판매보증비 비율 변동 없음</p> <p>3단계 지난 4개년간 매출액 대비 판매보증비 비율 감소 추세</p>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하여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강제적(비자발적) 리콜 대수에 따른 점수×1/2+연간 매출 대비 판매보증비 비율에 따른 점수×1/2</p> <table border="1"> <thead> <tr> <th>1단계</th> <th>2단계</th> <th>3단계</th> </tr> </thead> <tbody> <tr> <td>0점</td> <td>50점</td> <td>100점</td> </tr> </tbody> </table>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 자동차는 운전 부주의, 과속, 기상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와 승객 및 주변인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또한, 사고는 차량의 부품 결함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판매 전에 이러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결함 차량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비용으로 리콜되어 수리 또는 교체되어야 한다. 리콜은 기업의 리스크와 그로 인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수익 및 성장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반대로 차량 안전 확보 및 결함 발견 시 시의적절한 대응은 여러 소송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할 수 있으며 조직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직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조직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활용하여 지난 4개년간 조직의 강제적(비자발적) 리콜 차량 대수 및 연간 매출 대비 판매보증비 비율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상 기간에 평균 몇 퍼센트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복리 수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지난 4개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을 기점으로 '+' 수치를 보일 경우 '증가한다', '-' 수치를 보일 경우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으며, '0'이 아닌 다른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

용어 정의

- 강제적(비자발적) 리콜: 규제 당국 또는 기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리콜로, (1) 자동차 또는 자동차 장비 품목이 정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2) 자동차 또는 장비에 안전 관련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
- 판매보증비: 조직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문제에 대비하여 미리 설정하는 판매보증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고객이 보증 수리를 요청하거나 제품을 반품해야 하는 경우 조직은 판매보증 충당금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참고 자료

- 「SASB Standards – Automobiles」,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23
- 「CSA(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S&P Global Inc., 2023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자동차-S-2	사회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항목	서비스 채널 품질 관리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유통망 및 서비스 채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여부 확인 												
성과 점검	<p>고객 접점이 많은 유통망 및 서비스 채널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여부, 품질 관리에 근거가 되는 고객 서비스 품질 관리 표준 문서 유무, CS 교육 여부, 유통 채널 관련 내/외부 심사 및 인증 여부</p> <p>[활용 데이터] 조직의 유통 및 서비스 채널 관리 표준 문서, CS 관련 교육자료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 실체 [데이터 산식] N/A</p>												
점검 기준	<p>요건1 고객만족, 품질관리, 차량정비에 관한 서비스 표준 문서를 개정하며 유통 및 서비스채널에 배포</p> <p>요건2 고객만족, 품질관리, 차량정비와 관련한 의견을 유통 및 서비스 채널로부터 수렴</p> <p>요건3 조직의 유통 및 서비스 채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품질관리, 차량정비와 관련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p> <p>요건4 조직의 유통 및 서비스 채널 대상으로 정기적인 서비스 관련 내부 심사 수행</p> <p>요건5 조직의 유통 및 서비스 채널 대상 정기적인 서비스 관련 외부 인증(ISO9000 시리즈 등) 취득</p>												
	<p>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p> <table border="1"> <thead> <tr> <th>1개 충족</th> <th>2개 충족</th> <th>3개 충족</th> <th>4개 충족</th> <th>5개 충족</th> </tr> </thead> <tbody> <tr> <td>20점</td> <td>40점</td> <td>60점</td> <td>80점</td> <td>100점</td> </tr> </tbody> </table>			1개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1개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추가 설명

- 서비스 채널은 고객 구매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 또는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를 유통망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이 더 높은 고객 만족도와 그에 따른 충성도를 위해 필요한 품질 관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 높은 수준의 고객 응대 서비스와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의 범주를 고객 접점이 있는 유통 채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동차업종에서 고객 접점 유통 채널은 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판매사업장, 외부 유통업체, 고객 응대 CS 관련 조직, 직영 및 외부 정비 및 수리 센터 등이 포함된다.
- 품질 관리 시스템(QMS)은 조직의 품질 정책 및 품질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둔 시스템으로, 품질 관리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조직, 관련 정책, 프로세스 및 리소스로 구성된다.
- 자동차업종의 고객 접점 품질 관리 표준 문서로 자동차 판매 영업점 및 CS 관련 부서의 고객 응대 매뉴얼, 정비 및 수리 센터의 표준 정비지침 등이 있다.
- 유통 채널의 서비스 품질 관련 교육은 일회성 워크숍,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공식 교육 프로그램, 정비 기술 난이도에 따른 우수 엔지니어 인증 프로그램,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대상 기술 개발 연계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 유통 채널에 대상 서비스 관련 실사는 조직 내부의 품질 관리 부서, CS 부서, 감사 부서 등에서 진행되는 내부 실사와 외부 유통 채널 대상 실사가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실사를 수행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품질 관리 표준 인증으로는 ISO9000 시리즈가 있으며, ISO인증을 받고 있는 유통 채널의 비율 및 주기적인 갱신 심사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참고 자료

- 「ISO9000:2015」, ISO, 2021
- 「CSA(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S&P Global Inc., 2023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자동차-G-1	지배구조	윤리경영						
항목	반경쟁 행위 위반 사항 공시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반경쟁 행위 관련 법/규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반경쟁 관련 법/규제 리스크 해결을 위한 개선 활동이 효과적인지 확인 • 반경쟁 행위 관련 법/규제 위반 사건 중 조직의 재무구조 및 평판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반경쟁 행위 위반’ 사항 점검 								
성과 점검	조직의 지난 4개년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 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데이터 원천] ‘전자공시시스템’ 상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4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 실체 [데이터 산식] ∑ (반경쟁 행위 위반 건×처벌 수위별 감점 기준)								
점검 기준	<p>유형 1 지난 4개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규제 위반 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 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p> <p>유형 2 지난 4개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규제 위반 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 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인 경우</p> <p>유형 3 지난 4개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규제 위반 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 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 권고, 경고 등인 경우</p> <p>*감점 사항이 없을 경우 본 항목의 점수를 100점으로 산정, 최저점은 0점으로 제한</p>								
	<p>점검 기준 적용방안(감점형)</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 1</th> <th>유형 2</th> <th>유형 3</th> </tr> </thead> <tbody> <tr> <td>-50</td> <td>-30</td> <td>-10</td> </tr> </tbody> </table>			유형 1	유형 2	유형 3	-50	-30	-10
유형 1	유형 2	유형 3							
-50	-30	-10							

추가 설명

- 조직이 반경쟁 행위로 인하여 제재를 받은 횟수 및 제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확인하고 조직의 반경쟁 행위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조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 및 가격 담합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킬 경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이 반경쟁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규제기관에 의한 제재 부과와 평판 손상으로 기업가치와 재무 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불공정 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법체계를 경쟁법(competition law)이라고 칭하며, 한국의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반경쟁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의미한다.
-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조직은 확정판결된 반경쟁 관련 법/규제 위반 건수 및 처벌 수위 등을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용어 정의

- 시장지배적 사업자 :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 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23. 6. 20. 시행
- 「SASB Standards – Auto Parts」,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23

V

Chapter

부록





1. 업종별 이니셔티브 소개

1. 업종별 ESG 이니셔티브 동향

- 업종별 공동체를 설립하여 공동의 ESG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한 환경, 사회적 리스크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
 -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반도체 분야에서 활발히 ESG 이니셔티브가 설립되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사(社)를 중심으로 가입이 확산되고 있음
 - 향후 주요국 공급망 ESG 실사 관련법이 구체화될 경우, 업종별 주요 ESG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범을 활용할 것으로 판단
 - 다수의 이니셔티브에서 ESG 위험 평가와 공급망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평가 및 검증 프로그램*을 운영
-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VAP(Validated Assessment Program), Drive Sustainability의 SAQ(Sustainability Assessment Questionnaire) 등

2. 주요 업종별 ESG 이니셔티브

2-1. DRIVE SUSTAINABILITY: 자동차 산업

가. 설립 목적

- 공급업체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반에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사슬을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됨
- 임직원의 인권 존중, 적절한 근무조건 제공, 환경 피해 최소화,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함
- 공급업체, 이해관계자,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영향력 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추진함
- 업계 내 지속가능성 관련 공통된 활동 및 도구를 개발하고, 공급망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일된 접근 방식 및 프로세스를 장려함
- 완성차 및 부품 업계 전반의 기업 조달 프로세스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

나. 참여 단체(2023년 11월 9일 기준)

업종	전체	국내	주요기업명
완성차	11	0	BMW Group, Daimler Truck, Ford, Geely, Honda, JLR, Mercedes-Benz, Scania, Toyota, Volkswagen, Volvo
부품사*	33	1	Anglo American Platinum, Aptiv, BASF, Borgstena, BorgWarner, CLEPA, Continental, Cobalt Institute, Cummins, Danfoss, Cooper Standard, Eurofit, European Aluminium, Gestamp, Goodyear, Harman International, International Platinum Group Metals Association, ITW, Kirchhoff Automotive, Lear Corporation, Meneta, Nickel Institute, Origin Materials, Röchling, Rino Mastrotto, Samsung Electro-Mechanics, Saint-Gobain, SEG Automotive, TMG Group, Umicore, Vignal, Visscher Caravelle, Association of Steel and Metal processing Industry
총합	44	1	

* Drive+(Drive Sustainability를 적용하고자 하는 Tier-1 공급업체 및 공급업체 협회의 연합)에 가입한 기업 기준

- 국내 부품사는 Drive+에 가입하여 Drive Sustainability에서 제시하는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삼성전기) 기업윤리, 환경, 인권/근로조건 등 Drive+ 행동규범을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전장 사업에서의 ESG 경영을 강화¹²⁾하고자 함

다. 이니셔티브 핵심 준수 원칙

- Drive Sustainability는 회원 기업들에 공급망 지속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단계의 공급업체들이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Drive Sustainability는 기업윤리, 환경, 인권 및 근무 환경, 건강 및 안전,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의 5가지 분야에 대한 규범을 정의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이를 계단식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

라. 주요 활동

-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 공급망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규정 준수를 평가하며,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지원하며, 자동차 산업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 방법 및 요구사항을 구성함
- 지속 가능한 원자재 조달
 - 지속 가능한 원자재 공급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도구와 방법을 구성 및 촉진하고, 책임 있는 조달과 관련된 사회 및 환경 문제(원주민 권리, 지역사회 개선, 생물다양성 존중 등)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 시행
- 노동자 복지 보장
 - 생활 임금, 아동 노동 등을 포괄하는 노동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공통의 표준화된 비즈니스 및 인권 실사 도구와 해결책을 구성하고 촉진함. 표준화된 비즈니스 및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배포 및 촉진
- 공급망 탄소중립 달성
 - 공급망에서 탄소 배출물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 및 도구의 사용을 합의하고, 자동차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핵심 프로젝트를 구현함
- 공급망 순환경제 지원
 - 우선순위 이슈(상수도 관리, 공기, 폐기물,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오염 등에 대한 학습 네트워크를 설정 및 구축하고, 모든 관련된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

12) “삼성전기, 글로벌 공급망 협의체 RBA 가입…ESG 경영 계속된다”, 삼성전기 뉴스룸, 2023년 10월 2일 접속, <https://www.samsungsem.com/kr/newsroom/news/view.do?id=6940>.

2-2. Responsible Steel: 제철 산업

가. 설립 목적

- 기업과 소비자가 사용하는 철강이 모든 단계에서 책임감 있게 공급되고 생산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 확립
- 표준 정립은 철강 공급망 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고객 및 기타 관련 당사자 간의 토론과 협업을 통해 달성

나. 참여 단체(2023년 11월 9일 기준)

분류	전체	국내	주요기업명
기업회원	71	2	Atlas Commodities, Cargill, Hyundai Steel, Mercedes-Benz Group AG, POSCO, Tata Steel, thyssenkrupp Steel Europe, U.S. Steel, Volvo Cars 등
시민사회 회원	14	0	Bio Regional, CDP, Center for Resource Solutions, Ceres, Clean Air Task Force(CATF), Climate Catalyst, Fauna & Flora, IndustriALL, Industrious Labs, IUCN, Materials Efficiency Research Group(MERG), Mighty Earth, The Climate Group, We Mean Business Coalition
준회원	63	0	Australian Steel Institute, CSR Europe, Green Building Council of Australia(GBCA), International Manganese Institute(IMnI), International Zinc Association(IZA), International Tin Association(ITA) 등
총계	148	2	

- 국내 대기업들은 Responsible Steel에 가입하여 지속 가능한 철강 인증에 대비하고 글로벌 철강기업들과의 ESG 네트워크 구축
 - (현대제철) Responsible Steel에 가입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 및 협회에 대한 지지 선언과 주요 활동을 정기적으로 공시¹³⁾함
 - (포스코) 2022년 Responsible Steel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외부 기관 심사를 거쳐 포항, 광양제철소가 Responsible Steel 사업장 인증을 획득¹⁴⁾함

다. 이니셔티브 핵심 준수 원칙

- Responsible Steel 회원 기업은 가입 1년 내에 적어도 한 개의 사업장에서 Responsible Steel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철강 사업장이 Responsible Steel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함
- Responsible Steel 국제 표준은 리더십, ESG 관리 시스템, 책임 있는 조달, 산업 보건 및 안전, 노동권, 인권, 이해관계자 소통,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등 13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13) “현대제철 2023 통합보고서”, 현대제철, 2023, 31page

14) “포스코, 글로벌 ESG 표준 ‘ResponsibleSteel 사업장’ 인증 획득…아시아 최초”, 포스코 뉴스룸, 2023년 10월 2일 접속, <https://newsroom.posco.com/kr/90379-2/>.

라. 주요 활동

• 반도체업종 지속가능성 제고

생산자가 고객의 지속가능성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싱 책임 향상과 철강 공급망의 리스크 감소를 위해 노력하며 또한 선도적인 생산자가 철강을 책임광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철강 관련 인증 프레임워크 개발

원자재 조달에서 최종 제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철강 가치사슬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식별하고 보상하기 위해 인증 표준을 개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회원 기업의 의견을 수렴함

• 광업 분야 이니셔티브와 협력

IRMA 및 광업 부문의 다른 표준 이니셔티브와 협력하여 구매자에게 철강 공급망 전반에 걸쳐 책임감 있게 공급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광산 현장의 ESG 성과를 신뢰성 있게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공인하고자 노력함

2-3. TOGETHER for SUSTAINABILITY(TfS): 화학 산업

가. 설립 목적

-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공급망을 구축하고 규제 요건을 충족하며 특히 화학 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 회원 기업과 그의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성과 측정 지원, 평가 결과를 전체 회원 기업과 공유해 효율성 및 비용,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 개선
- 회원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기업 평판 보호, 비용 절감, 시장 우위 제공을 통해 회원사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 마련
- 회원 기업이 지속 가능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각 회원들의 CSR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화학 산업을 선도하고자 함

나. 참여 단체(2023년 11월 9일 기준)

- AkzoNobel, BASF, Bayer, Dow, DSM, Evonik, Merck 등 37개의 화학 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글로벌 기업 참여

다. 주요 활동

• Scope 3 배출량 감축 지원

① Scope 3 배출량 측정(PCF)

: 탄소 발자국을 계산을 통해 Scope 3 온실가스 배출을 식별, 추적 및 감축하기 위해, 회원 기업 및 공급업체에 화학 물질에 대한 제품 탄소 발자국 계산 지침(Product Carbon Footprint Guideline by TfS) 제공

② 데이터 공유 플랫폼 제공

: 지멘스의 SiGREEN 기술을 사용하는 IT 솔루션인 'PCF data-sharing solution'을 개발해, 2024년부터 회원 기업과 공급업체가 업스트림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 제공 예정

• TfS Assessment

① 공급망 기업 ESG 평가

: GRI, UNGC, Responsible Care principles, ISO26000 등 국제 CRS 표준을 기반으로 한 설문 기반 평가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TfS 회원 기업 전체에 공유됨

(1단계) 등록: 공급업체가 TfS 회원의 초대를 받아 평가에 온라인으로 등록

(2단계) 데이터 수집: 공급업체가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고 타사 인증을 포함한 데이터를 TfS에 제공

(3단계) 분석: 지속가능성 전문가가 데이터 검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 최종 점수에 반영

(4단계) 결과: 전체 평가 점수, 카테고리별 점수, 강점과 개선점이 포함된 평가표를 회원 기업에 전달

(5단계) 시정조치 계획(CAP): 지속가능성 성과 개선을 위한 로드맵인 CAP를 이용해 지속가능성 성과 개선

② 공급망 기업 실사(TfS Audit)

: 승인된 외부 감사인이 경영, 환경, 건강 및 안전, 노동 및 인권,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된 감사 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며 결과는 공급업체 및 모든 TfS 회원 기업과 공유됨

(1단계) 경영, 환경, 건강 및 안전, 노동 및 인권,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된 감사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성과 검증

(2단계) 개선을 위해 CAP를 작성하고 감사를 받은 공급업체는 재감사 전까지 36개월(중대한 경우 12개월)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함

(3단계) 감사를 받은 기업과 회원 기업은 TfS OASIS 플랫폼을 통해 감사 결과와 CAP에 대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2-4.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전자 산업 및 연관 산업

가. 설립 목적

- 전자 산업*에서 그들의 공급망이 산업안전, 인권 및 윤리경영, 환경 책임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이니셔티브
 - * 전자 산업은 전자제품 판매, 제조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업체를 의미
- 회원 기업, 그들의 공급망 기업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작업 환경조건과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

나. 참여 단체(2023년 11월 9일 기준)

- 전자 산업뿐만 아니라 소매, 자동차 제조 기업 등 전자 산업의 공급망에 속하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여 활동 중
- 주요 가입 기업: Alphabet Inc., Amazon.com, Inc., Apple Inc., Canon Inc., Cisco, HP Inc., Lenovo, LG Electronics, Microsoft, Motorola Solutions, Inc., Philips, Samsung Electronics, SK hynix Inc., Sony Group Corporation 등 총 232개(2023년 11월 9일 기준)

다. 이니셔티브 핵심 준수 원칙

- RBA 참여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RBA 행동규범*을 지지 선언하고 규범에서 제시한 기준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최소한 1차 공급업체에 본 규범을 실행할 것을 요청해야 함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 7.0(2021)

- RBA는 핵심준수사항으로 노동, 안전보건, 환경, 기업윤리, 경영 시스템의 5가지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위험 요소 관리 권고

라. 주요 활동

- VAP(Validated Assessment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해 제3자 검증 회사에서 각 기업의 RBA 행동규범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기업의 이행 여부에 따라 Platinum, Gold, Silver 등급으로 구분함
- RBA-Online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과 공급업체 간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 진행, 지속가능성 데이터 관리 기능 활용 가능



산업통상자원부